

중국 위안화 절상압력 고조

I. 위안화 환율 동향

□ 위안화 환율 안정세 지속

- 위안화 환율은 '94년 단일환율제 시행(달러당 5.76위안 ⇒ 8.62위안, 33.3%절하)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동 없이 8위안 수준 유지
- 특히 동남아 외환위기 기간중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가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당 8.27~8.28수준의 안정세 유지

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추이

	93	94	95	96	97	98	99	00	01/3	01/6	01/10/15
미달러당 환율	5.7620	8.6187	8.3174	8.2982	8.2798	8.2787	8.2795	8.2774	8.2777	8.2767	8.2768

□ 최근 암달러 빠르게 하락

-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환율변동폭(±0.3%)이 작고, 외환시장의 제한적 운용으로 암달러 시세가 중국 환율 변동의 바로미터 역할
 - ※ 중국 외환시장의 매도/매수의 70%를 중국은행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각각 차지함으로써 환율 변동 미미
- 암달러 시장에서 달러가치는 지난해 9.0위안을 최고로 2개월전 까지만 해도 8.4~8.5위안에서 형성
- 그러나 요즘 달러당 8.25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, 이는 환율 단일화 이후 최저수준임

II. 암달러화 가치 상승 배경

□ 달러화 초과 공급에 따른 시중 유동성 풍부

- 달러화 예금금리의 지속 인하에 따른 달러화 보유 욕구 감퇴
- 달러로 거래되는 B주 주식시장 침체로 달러 수요 감퇴
 - 올해 초 내국인의 B주식에 대한 거래 허용으로 B주식이 한 때 200% 이상의 폭등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최근 B주식이 크게 하락하면서 달러수요 감소
- 중국정부의 강력한 밀수단속에 따른 달러화 수요 감소

□ FDI 유입 증대

- 외국인투자가 1~9월중 322억 달러로 큰폭 유입(↑20.7%)
- 1~9월중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 136억 달러 기록
- 외환보유액 급증
 - 대외거래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중국의 금년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,901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245억 달러 증가

□ 달러화 평가절하 가능성

- 미국경제의 침체, 테러 보복전쟁 확산 등의 불안정성 확대로 달러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작용

III. 향후 전망

□ 절상압력 있으나 현재의 안정세 지속될 듯

-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내수진작과 함께 중국 성장엔진의 양대 축인 수출증가 둔화 가속
- 외국인투자 유치의 급속한 위축 초래
- 따라서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
□ 장기적으로는 소폭 평가절상 가능성

- 향후 중국경제가 연평균 7%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고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면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
- 모건 스탠리는 2,005~10년중 25%의 위안화 절상 전망

문의 : 개도국신용평가실 차장 김주영 ☎ 3779-6647, jykim@koreaexim.go.kr
 대리 전선준 ☎ 3779-6650, jsjun@koreaexim.go.kr